

윤활유 업계 동향

S K 에너지(주)

최태원 SK 회장, 사내방송서 신년 구상 밝혀

최태원 SK 회장이 그룹 사내방송에 출연, 구성원 패널 및 방청객들과 150분 동안 토론하면서 신년구상을 밝혔다.

최 회장이 올 초 전 계열사로 확대된 그룹 사내방송에 출연해 신년구상을 밝힌 것도 파격적이지만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욕적인 모습도 보여줬다. 최 회장은 지난 10~11일 이틀 동안 전 계열사에 방영된 ‘2008년 SK, 회장에게 듣는다’에 출연, “2007년은 행복을 담은 그릇을 확장시키고, 준비를 잘 해온 해였다”고 평가한 뒤 “올해는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최근의 관심사인 CIC제(사내 독립기업제)의 취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됐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 “그 동안 SK그룹은 회사별로 자율경영을 해왔지만 이제는 CIC제 도입으로 단위 조직별로 자율경영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사업부서가 마치 회사인 것처럼 행동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하지 못한 한 직원은 최 회장에게 WCDMA 화상전화로 전화를 걸어 ‘2008년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최 회장은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인 점을 감안, 화이트보드에 20분 동안 그림을 그려가면서 변화의 3가지 메가트렌드를 열성적으로 설명했다.

최 회장은 “변화의 3가지 메가트렌드는

-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
-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 ▲행복추구(Human Enrichment)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디지털라이

제이션, 세계가 서로 열려서 통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휴먼 엔리치먼트의 3가지 방향으로 세상이 변하듯 SK도 입체적으로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여러 질문들이 계속되자 모두 외투를 벗고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다. 최근 기업의 변화 방향과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 회장은 “SK에 있어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과 성장 조건이며, 특히 속도 있는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변화에 내가 적응해서 항상 내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편할 것”이라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변화는 선택이 아니며, 나아가 세상의 변화 속도보다 우리의 변화 속도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인 질문도 이어졌다. 쥐띠인 최 회장이 올해 쥐띠 해를 맞아 기억에 남는 쥐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에 나온 쥐들이 옮겨진 치즈라는 변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가가 인상적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 회장은 “최근에 본 ‘라따뚜이’라는 영화에서 요리에 대해 영감을 받은 쥐가 나오는데, 그 쥐를 보며 누구든지 자기가 노력을 하면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데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로써 그 쥐가 기억에 남았다”고 재치 있게 답했다. 지난 3일 150분 동안 NG없이 진행된 ‘2008년 SK, 회장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은 40분 분량의 두 편으로 나뉘어 10일과 11일 9시 전 계열사를 통해 방영됐다.

GS칼텍스(주)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 기반구축

방향족 제품 시장은 원유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운월유 업계 동향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갖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족 제품 시장도 일정한 경기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시점을 예측하고 적시에 투자를 진행한다면 매출성장과 수익성제고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있다.

방향족사업부문에서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시 투자를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기존 방향족 공정의 기술제공사인 UOP와 기존 공정 revamp를 통한 처리능력 증대와 신설 공장 건설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다각적인 검토와 여러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존 #1 방향족 reformer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방향족 생산시설 revamp 프로젝트는 정해진 셋다운 기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투자검토와 의사결정을 적기에 진행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방향족사업 부문에서는 주주사인 쉘브론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및 엔지니어링사와의 유기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했고 그 결과 1년여 만에 만족할 만한 IPA 평가를 비롯해 경영층으로부터의 투자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Reformer의 역할은?

원유로부터 생산되는 중질납사 중 방향족의 총 함량은 대략 10~20%에 불과하다. 이러한 농도로는 수율이 너무 낮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중질납사 중 일부 탄화수소(주로 나프텐)를 촉매의 도움을 받아 방향족으로 전환하는 reforming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방향족 함량은 60% 이상으로 증가하며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장치가 reformer이다. 방향족 생산용 reformer는 운전 중에도 촉매를 연속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설계해, 촉매재생을 하기 위해서 운전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촉매연속재생 reformer 공정을 사용한다. 즉 촉매연속 재생장치가 있는 reformer는 탄소축적의 속도가 빠르더라도 운전

일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흑독한 조건(반응기의 온도를 항상 최고로)으로 운전할 수가 있어 방향족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evamp 공사 준비 과정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

회사 조직가치 실천문의 한 구절이다. 이 한 구절이 방향족 생산시설 revamp 추진과정과 건설과정을 한마디로 압축해 나타내주는것 같다. 방향족 생산시설 revamp 프로젝트는 운전 중인 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 신규 프로젝트와는 달리 기존 설비와의 연계성과 제한적인 부지, 정해진 공사기간 내 건설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보다 더 많은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모든 팀원은 장치의 기계적 한계까지의 증설을 목표로 설계검토와 타사 벤치마킹 등을 수행했고, 그 결과 일처리능력 기준 45,000bbbl이라는 기존 처리능력 대비 190% 증설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의 revamp 개념을 뛰어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팀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결정에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

따라서 설계단계부터 공사담당자를 참여시켜 실제 공사 순서와 공사 용이성을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했으며 운전 중 사전 공사가 가능한 부분과 반드시 셋다운 기간 내에만 가능한 일을 분류했다. 셋다운공사의 특성상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에 셋다운 때에만 가능한 작업을 어떻게든 운전 중 사전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 설계와 생산, 시공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 방안을 연구하는 힘든 날들이었다.

Revamp 건설 공사와 의의

2006년 11월, 드디어 착공이 시작됐다. 운전 중인 공장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들이 난관의 연속이었다. 모든 작업 시 안전성을 검토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일을 반복했으며 관련된 설계는 모두 현장에서 시공과 동시에 수

윤활유 업계 동향

행했다. 파헤쳐진 땅, 여기 저기서 수행되는 용접 작업 등 당시 현장은 도저히 운전 중인 공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작업안전과 운전안전을 모두 지켜야 하는 담당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후 2007년 10월 1일 시작된 섀다운 공사에서 중요한 점은 정해진 섀다운 기간 내에 안전하게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었다. 기간 단축에 따른 회사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단 하루라도 섀다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공사담당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매일 아침 안전회의와 매일 오후 장비사용 계획 및 공사 현안 회의가 이어졌으며 계획된 공사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작업과 철야작업의 연속이었다.

공중 간의 간섭이나 장비 사용 계획 중복이 발생할 때마다 조율에 나섰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으로 작업이 지연되면 대안을 마련해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계획과 관리, 그리고 담당자들의 몸을 아끼지 않은 열정으로 방향족 생산시설 revamp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된 섀다운 기간보다 11일 앞당겨 기계적 준공을 달성할 수 있었다.

방향족 생산시설 revamp 프로젝트는 기존 revamp 프로젝트의 개념을 바꾼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로 기존 시설의 처리능력을 두 배 가까이 확장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로써 회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방향족 공장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

S-Oil (주)

S-Oil, 토탈과 손잡고 윤활유 사업 강화

S-Oil(010950)이 글로벌 화학기업인 토탈과 손잡고 윤활유 사업분야를 강화한다.

10일 S-Oil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윤활유 사

업을 확대하기 위해 토탈과 이수화학이 공동투자한 윤활유 합작기업 '토탈이수오일'의 지분 50%를 매입하기로 했다.

내주조짐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5월께 합작법인이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은 이수화학이 합작사 지분 50%를 토탈측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S-Oil이 매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이수화학은 공시를 통해 윤활유 생산부문 관련 일부자산 및 투자지분을 '토탈이수 오일(TOTAL ISU OIL)' 및 '토탈 프랑스(TOTAL FRANCE S.A)'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매각예정가는 132억원으로, 이수화학측은 비주력사업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화학 관계자는 "이수화학의 매출 6000억원 가운데 윤활유 관련 매출액은 53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0.68%에 불과하다"며 "토탈측에서 윤활유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함에 따라 비주력 분야의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Oil과 토탈은 각각 30여명의 인력으로 오는 5월 'S-Oil-토탈(가칭)'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S-Oil은 현재 12~13%인 국내 윤활유 시장점유율을 20%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토탈과 함께 생산설비 확대 등 대규모 투자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셀석유 (주)

Helix 신제품 출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장착 차량용 신제품 출시: Helix Ultra Extra 5W/30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CPF-Catalyzed Particulate Filter)가 장착된 차량의 장비를 최상의 조건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초고성능 100% 합성엔진오일이 출시되었습니다.

후처리 장치가 장착된 승용디젤차량 (SUV, 승용디젤차량)에 가장 적합한 제품임은 물론 후처리 장치가 없는 승용디젤차량 (SUV, 승용디젤차량)과 일반 가솔린 차량에도 엔진반응성과 소음 감소 등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DPF/ CPF) : 매연감소 장치

100% 합성유의 선택 범위를 넓혀드리는 신제품 출시: Helix Plus 5W/30

최근 가솔린 엔진오일 시장은 낮은 점도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100% 합성유 5W/30 을 출시하였습니다.

르노-삼성의 SM시리즈는 5W/30만 추천되며, 현대-기아차의 경우도 5W/30 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Helix Plus 5W/30 은 엔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정 첨가제를 바탕으로 제조되어 엔진을 늘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과 동시에 부드러운 드라이브를 느끼게 해드립니다.

르노삼성의 SM 시리즈, 현대-기아차의 가솔린 승용차 및 5W/30 이 추천된 수입차량에 진보된 합성유의 느낌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주) 한국발보린

2008오토서비스코리아 전시회 참가

한국발보린이 2008 오토서비스코리아 전시회를 참가하여 엔진오일 제품으로는 100%최고급 합성유 신폴워와 노후화된 엔진을 힘차게 만들어주는 기능성 엔진오일 MAXLIFE 제품을 선보입니다.

또한 광택/세정제 제품으로는 나노기술의 이글원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금번 행사에서는 이글원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으로써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수화학(주)

이수화학 ‘윤희유 사업 손 댄다’

토탈에 132억원 규모 매각...

‘주력사업 집중 전략’ 국내 정유사와 손잡거나 엑손·셸 처럼 독자사업 고려중. 이수화학이 윤희유 사업부문을 프랑스 토탈(TOTAL)사에 매각한다.

11일 이수화학에 따르면 울산에 위치한 윤희유 사업 자산을 토탈이수오일(TOTAL ISU OIL)에, 또한 투자지분을 토탈(TOTAL FRANCE)에 총 132억6천만원에 매각기로 결정했다.

토탈이수오일은 지난 2003년 10월 토탈과 이수화학이 각각 51대 49의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바 있다.

이수화학 관계자는 "윤희유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토탈이수오일이 생산·영업에 맡아왔기 때문에 사업 철수를 단행했다"면서 "이번 매각은 비주력사업부문의 양도를 통한 기존 사업부문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매출액 7천709억원 중 윤희유 생산 부분의 매출액은 53억원으로, 이번 매각에 따라 회사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수화학은 석유화학, 정밀화학, 윤희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울산공장에서 LAB(Linear Alkyl Benzene), BAB(Branched Alkyl Benzene)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온산공장에서는 NP (Normal Paraffin), Solvent, TDM (Tertiary Dodecyl Mercaptan), 윤희유 등을 제조하고 있다.

한편 토탈은 이수화학과의 결별로 국내 정유사와 손 잡는 방식이나 엑손(Exxon mobil)이나 셸(Shell) 처럼 독자사업을 추진하는 두가지 방안을 고려중인 가운데, 현재 에스-오일(S-Oil)과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